

어린이집 입학상담의 지금-여기(here and now) :
원장들의 에피소드와 은유를 중심으로

The Here and Now of Admission Counseling at Child-Care Centers
- With a Focus on the Episodes and Metaphors as Used by the Principals -

김수향(Soo Hyang Kim)¹⁾

권은주(Eun Joo Kwon)²⁾

정경화(Kyung Hwa Chung)³⁾

이영림(Young Rim Lee)⁴⁾

ABSTRACT

The purpose of study is to understand how a principal of a child-care center and parents accept different episodes and experiences in admission counselling and their use of metaphorical expressions about this, and to illuminate the current state of play by examining the requirements of parents in selecting a child-care center. The subjects were 10 principals of private child-care centers located in the Gyeongsangbuk province of Korea, and the research materials for episodes and metaphors were collected and analyzed by means of in-depth and telephone interviews during an application period. In terms of the overall climate of the admission counselling, as shown in the various episodes, our results indicated that an increase of parents' demands occurred through a primarily consumer-centered environment, and the sudden increase in a fathers' participation, the inside circumstances of admission counselling in progress throughout the year, the non-existence of respect and credibility and the continuity of conflicts and were all observed to co-exist. In terms of the emotional meaning of counselling via metaphors, the following emotions could be inferred; hopelessness, anger, lethargy, stress, fear and eagerness. It is

¹⁾ 위덕대학교 유아교육학부, 부교수

²⁾ 동국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³⁾ 동국대학교 유아교육과, 강사

⁴⁾ 동국대학교 유아교육과, 강사

Corresponding Author : Soo Hyang Kim, Division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Uiduk University 525 Yugeum, Gangdong, Gyeongju, Gyeongbuk 780-713, Korea
E-mail : shkim@uu.ac.kr

anticipate that this study will make a meaningful contribution to better illuminating and improving the current climates of here and now admission counselling.

Key Words : 입학상담(admission counseling), 원장(principal), 에피소드(episode), 은유(metaphor).

I. 서 론

오늘날 ‘보육’은 생산 가능인구 감소로 인한 여성 경제활동의 증가와 가족 구조 변화에 따른 다양한 육아지원 서비스의 요구, 전인적 발달을 위한 인생 초기 경험의 중요성과 미래인적자원의 양성 등으로 이제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 보편적 복지서비스를 실현하는 사회·국가적 차원의 문제가 되었다.

보건복지부 2010년 12월 31일 기준 보육통계에 따르면, 보육시설은 2010년 말 전체 38,021개 소이며 보육아동 수는 1,279,910명이다. 이는 1991년 영유아보육법이 제정된 이래 약 10배가 넘는 보육시설이 설치되어 양적으로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두었으나 현재 아동의 이용률이 보육 시설 정원 1,556,808명의 82.2% 정도에 그치고 있다. 이는 최근 급속한 출산율 하락으로 아동수요의 감소가 큰 원인이며 이로 인해 대다수 유아교육기관의 원아모집이 어려운 실정이다. 보건복지가족부 ‘2009 전국보육실태조사’에서 현재 운영 중인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운영 시 어려움을 겪는 부분을 파악해 본 결과, 재정적 어려움(2.95점), 원아모집(2.82점), 행정(2.7점), 종사자(2.6점) 순이었다. 원아모집의 성패는 곧 어린이집의 재정적 운영과 직결되므로 효과적인 원아모집을 위해서는 지역사회와 학부모들에게 홍보활동은 물론 학부모와의 원활한 ‘입학상담’은 더욱 중요한 사안이다. 어린이집의 원아모집은 영·유아의 개별적 상황, 학부모의 사정과 그 시설의 보육능력을 고려하여 상시적으로 이루어지는 편이지

만, 일반적으로 보통 11월쯤 유치원과 함께 혹은 그 이후에 입학상담이 진행되기도 한다.

‘입학상담’은 학부모와 유아교육자의 단순한 ‘만남’이 아니다. 사회적 맥락이 아동의 삶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논의(권대원, 2008; Bronfenbrenner, 1993; Kozulin, Gindis, Ageyevu, & Miller, 2003; Lerner, 1991; Vygotsky, 1978)에서 알 수 있듯이, 부모는 어린 자녀에게 사회적 환경인 ‘보육시설’을 직접 정해 주기 때문에 부모로서는 매우 중대한 선택일 것이다. 그러므로 부모와 유아교육자들은 협력이 되고 동료가 되어 아동의 발달과 성장을 최대한 도와주기 위한 공동의 노력(Gordon & Browne, 2004)이 필요하다.

그러나 실제 유아교육현장에서 교육자들은 부모와의 이러한 협력이 자신의 일에서 가장 어려운 일로 생각한다고 Gibbs(2005)는 밝혔다. 이것을 뒷받침 해 주는 연구로 Mattews와 Casteel은 정신노동자들의 직업별 스트레스를 조사 한 결과, 사람을 상대로 하는 교직은 타 직종의 직무환경 보다 더 스트레스 유발환경에 노출되어 있어서 스트레스 직종이라고 보고하였다(당동진·박희진·박종안·손부순·이종화, 2006, 재인용). 직무스트레스 중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입학상담’은 더욱 그렇다고 볼 수 있다. 사회적으로 핵가족화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이 증가함에 따라 보육수요가 높아지고 있는 추세로 학부모로부터 양질의 보육과 다양한 형태적 서비스의 요구가 많아지는 반면, 보육시설과 보육정책의 상황이 현실적으로 뒷받침되지 못하기 때문에 입학상담 과정에서 서로 요구하는 바에 대한 조율

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 원만한 의사소통이 힘들고 이로 인해 부정적 에피소드를 발생시킨다.

특히 입학상담을 전적으로 담당하는 시설장(원장)은 원아모집과 관리, 보육활동, 종사자 관리, 시설·설비 관리, 사무 및 재정관리, 부모 및 지역사회와의 협력 등 어린이집 운영에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며(강문희·윤애희·이경희·정정옥, 2007) 보육서비스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측면에서 연구자는 어린이집 원장들의 입학상담 기간 동안의 ‘삶으로 들어가’ 그들의 관점을 통해 최근의 보육현장 풍토를 살펴보고자 한다.

지금까지 부모상담과 관련된 연구를 살펴보면, 질적 연구로 초임교사의 부모면담에 대한 어려움과 교사교육의 방향에 관한 연구(우민정·김지혜·한지희, 2009), 양적연구로 유아교육기관에서의 부모면담에 관한 교사와 부모의 인식(강선화, 2008), 유아교육기관의 부모상담 현황 및 교사와 부모의 요구 분석을 다룬 연구(김영옥·홍지명·김세루·김권일, 2008), 유치원 개인면담의 현황 및 교사와 부모요구에 대한 연구(황현주, 2003), 부모교육으로서 부모면담이 갖는 효과에 관한 연구(김용남, 2001), 유치원 부모면담에 대한 실태조사에 관한 연구(황향숙, 1990) 등으로서 모두 입학 이후에 실시되는 부모면담에 대한 내용을 다루었으며, 그 제언으로 체계적인 부모상담 방법과 향후 부모 면담을 위한 교사교육과 부모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을 모색한 것이다. 그리고 보육 시설장에 관해 논의된 연구들을 보면, 직무만족과 직무스트레스 등을 다룬 양적 연구(김미숙, 2008; 정정옥·김승경, 2010)가 있으며, 질적 연구로는 어린이집 원장의 교직경험(한미경·염지숙, 2009)과 삶과 일에서 나타난 원장의 리더십(정은경, 2008)에 대해 원장 한 명을 대상으로 생애사적 접근을 한 것이다. 이러한 선행연구는 어린이집 원장의 삶과 일에 대해

심도 있게 다루고 있어 원장의 역할에 대한 성찰적 의미를 제공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한편 이대균과 최서영(2008)의 질적 연구인 ‘사립유치원 원장의 고충과 보람, 그리고 희망’에서 원아모집과 그로 인해 파생되는 문제점을 언급하였으나 이는 유치원의 운영관리에 대한 문제점을 담고 있으며 더욱이 원아모집에 대해서는 짧게 다루었을 뿐 부모와의 입학상담에 대해서는 거론하지 않았다.

따라서 어린이집 운영과 보육의 질에 지대한 영향을 주고 있는 시설장(원장)에 대한 연구는 많이 부족하며 또한 보육시설 운영에 가장 기초가 되는 원아모집을 위한 입학상담에 관한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다. 최근에는 보육사업의 양적인 확대와 더불어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의 제고가 정책적으로 중요한 쟁점이 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어린이집 입학상담의 풍토를 통해 보육현장을 살펴보고 방향을 논의하는 작업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특히 본 연구는 ‘입학상담’이라는 구체적 상황에 대한 일화를 통해 그 곳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또한 그것은 그 개인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이러한 내면화되는 과정 속에서 나타나는 감정, 사고와 행동이 가지는 의미를 내부자 관점으로 탐색하는데 질적 연구가 더욱 가치가 있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해석적 관점에서 활용되는 에피소드 연구법(ethogenics)을 사용하고자 한다. 더욱이 이것은 에피소드 속에 내재되어 있는 개인의 신념이나 생각의 형성 과정과 계열성을 연구하며 에피소드가 지니는 구조를 밝혀 사람들의 행위가 지니는 의미를 탐구(김병욱, 2007 재인용)하는 데 용이하기 때문이다.

또한 우리의 삶 자체가 ‘은유의 세계’(Lakoff & Johnson, 1980)라는 시각을 가지고 입학상담에 대한 원장들의 정서와 사고를 은유(metaphors)를

통해 밝혀보고자 한다. 은유는 어떤 한 개념을 설명하거나 전달하려 할 때 무언가 다른 것에 비유해서 설명하는 것(이윤주·양정국, 2007)으로, 현상적인 경험의 생생함을 포착할 수 있도록 도와줌으로써 문자그대로의 언어의 표현보다 언어의 주관적인 경험을 더 풍부하고 생생한 이미지로 전달(김기수, 2001)할 수 있기 때문에 자신만의 독특한 아이디어로 함축하여 그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의 은유의 기능은 다양한 생동감 있는 언어를 통해 원장들의 입학상담 경험을 표현하는 중요한 정서적 단서를 제공해 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원장과 학부모와의 어린이집 입학상담 과정에서 일어나는 에피소드와 이러한 경험을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는지 은

유적 표현을 알아보고, 원장의 관점을 통해 학부모의 어린이집 선택 시 요구를 살펴봄으로써 현재 보육현장의 세계를 밝히는 데 목적이 있다. 이에 따른 연구문제는 에피소드에 나타난 원장의 관점에서 본 입학상담의 풍토는 어떠하며 은유를 통해 본 원장들의 입학상담에 대한 정서적 의미는 무엇인가이다.

II. 연구방법

1. 연구 참여자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경상북도에 소재한 민간어린이집 원장 10명으로서 김미숙(2008)의 선

<표 1> 연구 참여자의 일반적 배경

참여자	연령 (만)	성별	경력	최종학력 (전공)	규모	교직원 수	시설 형태	주변 지역
원장 1	52세	여	12년	유아교육 석사	50명 이상	5명 이상	자가 단독 건물	주택 지역
원장 2	46세	여	23년	사회복지 석사	50명 이상	5명 이상	자가 단독 건물	APT와 주택
원장 3	44세	여	18년	유아교육 석사	100명 이상	15명 이상	자가 단독 건물	APT와 주택
원장 4	46세	여	24년	사회복지 석사	50명 이상	5명 이상	자가 단독 건물	APT 지역
원장 5	43세	여	9년	사회복지 석사	80명 이상	10명 이상	자가 단독 건물	상가 지역
원장 6	44세	여	21년	사회복지 석사	100명 이상	15명 이상	자가 단독 건물	APT 지역
원장 7	44세	여	19년	유아교육 석사	50명 이상	5명 이상	자가 단독 건물	APT 지역
원장 8	51세	여	26년	사회복지 석사	80명 이상	10명 이상	자가 단독 건물	APT 지역
원장 9	34세	여	9년	유아교육 석사	30명 이상	5명 이상	자가 단독 건물	상가 지역
원장 10	41세	여	17년	유아교육 석사	80명 이상	10명 이상	자가 단독 건물	상가 지역

행연구에 근거하여 연령, 경력, 최종학력, 전공 분야, 규모, 시설 형태, 주변지역 등을 고려하여 선정되었다.

보건복지부 ‘2009년 전국보육실태조사’의 보육시설조사(요약)에서 보면, 조사대상 보육시설(3,204개소) 중 시설장의 성별 분포는 여자가 94.1%이고 남자가 5.9%이며, 보육시설 시설장의 평균 연령은 43.2세, 시설장의 최종 학력은 3년제 이하 대학졸(33.6%), 4년제 대학졸(29.3%), 대학원졸(15.6%), 고졸(10.2%) 순으로 나타났고, 총경력은 평균 9년 10개월로 나타났으며, 최종 전공은 유아교육학이 43.8%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사회복지학(14.3%), 아동학(7.2%), 보육학(5.0%), 교육학(3.9%) 순이었다.

이를 토대로 본 연구 참여자들에 대한 일반적 배경은 표 1과 같다. 성별은 모두 여성으로 평균 연령은 43세이며 특히 연구대상을 모두 석사 학위자로 선정한 이유는 첫째, 2004년 보육시설 실태보고에 따르면 시설장의 최종학력 중 대학원졸이 10.0%로 2009년(15.6%)에는 5.6% 증가되었으며 점점 늘어나는 추세로서 주변에서 석사 학위소지자인 시설장들을 쉽게 접할 수 있었다. 둘째, 참여자들은 본 연구의 목적인 현재 보육현장의 풍토를 면밀히 밝히려는 연구 의도에 공감하고 이것이 논의되어지는 것에 높은 요구를 보였으며 참여하기를 적극적으로 원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조건은 보육 상황을 현실적으로 보다 깊이 있게 다룰 수 있어 본 연구의 목적에 부합하다고 본다. 한편 연구 참여자의 최종 전공은 유아교육학 5명, 사회복지학 5명이며, 총경력의 평균은 18년으로 그 범위는 9년부터 26년까지이다. 참여자들은 심층면담을 수행한 연구자들과 약간의 안면이 있었기 때문에 라포(rapport) 형성과 감정이입에 도움이 되었으며 연구를 촉진시킬 수 있었다.

2. 연구 절차 및 자료 수집

본 연구의 자료 수집은 2010년 10월부터 12월 까지 3개월 간 진행되었다. 먼저, 연구 참여자들에게 전화로 연구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과 연구 참여의 동의과정을 거친 후 연구자가 할 질문에 대한 정보를 미리 제시하였다. 연구주제가 ‘입학상담’이므로 그 시간적 특수성을 살리기 위해 직접 ‘그 현장 속으로’ 들어가 연구 참여자와 역동적으로 그 세계를 함께 경험하고자 노력했다. 따라서 원아모집 입학상담 기간에 맞추어 일대일로 반구조화된 심층면담(In-depth Interview)을 실시하였다.

우선, 연구의 가능성과 연구방향을 확인하기 위해 2명에게 예비 면담을 실시하여 질문의 내용과 방법 등의 제반사항을 확인하고 수정·보완한 후에, 본 면담을 실시하여 일상적 이야기부터 연구주제와 관련된 심도 있는 질문까지 참여자별로 심층면담 2회와 전화면담 1회가 이루어졌다. 면담진행 과정은 각각 1차 면담을 실시하고 대략 1개월 후에 2차면담이 이루어졌으며, 그 후에 새롭게 발생될 수 있는 에피소드를 얻기 위해 3차로 전화면담을 시도하였다. 그리고 반구조화된 1, 2차 인터뷰를 위한 면담의 내용은 다음의 표 2와 같다. 1차는 10월에 실시하여 시간상 입학상담이 아직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과 2차는 보통 11월과 12월에 대체적으로 입학상담이 많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고려하여 1, 2차로 나누어 2회를 면담하였다. 면담 내용의 선정 기준은 1차는 연구 참여자 중심으로 전개되고 2차에서는 연구 참여자에서 학부모로 연계되면서 현재의 보육현장에 대한 논의가 드러날 수 있도록 의도하였으며 이것은 계열성을 지닌 에피소드 연구법의 특징을 살리기 위함이다.

이러한 면접질문을 활용하여 연구 참여자들의

<표 2> 1, 2차 면담 내용

1차 면담 내용	2차 면담 내용
연구 참여자의 일반적 배경	입학상담 에피소드의 과거와 현재
연구 참여자 어린이집 상황	현재 입학상담의 인식과 변화
시설장의 역할	학부모의 어린이집 선택시 중점 사항
입학상담 과정에서 주로 다루어지는 내용	학부모 요구에 대한 연구 참여자의 사고와 행동
입학상담 과정에서의 어려움과 보람	입학상담에 대한 은유
입학상담 관련 에피소드	보육현장의 풍토와 입학상담의 방향 제기

진술한 답변을 얻으려고 했으며, 또한 정해진 질문만 사용한 것이 아니라 상황적 맥락에 필요한 질문도 함께 실시하면서 답변에 이해가 되지 않을 때는 보충 질문을 하거나 혹은 연구 참여자가 자신의 특별한 경험과 상황을 말하지 않고 일반화된 사례를 서술할 때는 실제 자신의 경험에 대해 말해 주기를 요청했으며, 심도 있게 진행 될 부분에서는 구체적으로 질문하였다. 면담의 실시는 원아모집 시기로 바쁜 상황임을 감안하여 면담시간과 장소를 연구 참여자들의 개인 사정에 따랐으며, 되도록이면 외부적으로 다른 것에 방해받지 않고 또한 비밀유지가 가능한 장소를 선택하였다. 면담 소요시간은 한 회당 1시간에서 1시간 30분 정도였다.

연구자는 상호작용적 면담을 진행하면서 적극적인 경청자세로 개인적 선입견이나 견해, 추정하는 등의 판단을 차단하는 ‘epoche’(Katz, 1987; Patton, 2002) 과정 속에서 그 현상을 외적인 개입 없이 순수하고 개방적 사고로 접근하였다. 면담내용은 연구 참여자의 동의하에 모두 녹음을 하였고, 매번 면담직후에 돌아와 참여자의 정서를 관찰한 내용을 적고, 그가 제공한 에피소드 및 은유의 표현들을 축약하여 현장노트에 기록하였다. 면담 종료 시에 추후면담의 가능성에 대해 말해주고, 원아모집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귀

중한 시간을 내어 준 것에 고마움을 전했다.

이 밖에 심층면담 자료 외에 연구의 타당도를 높이기 위하여 실제 입학상담 과정을 녹음한 에피소드 기록을 추가로 수집하여 지금-여기에서 벌어지는 입학상담의 현장성을 살리는 데 노력하였다.

3. 자료 분석

연구는 심층면담을 통해 얻은 녹음 자료와 전화면담을 하면서 요약하여 적은 노트를 분석하였으며, 전사(transcription)는 면담 바로 직후에 전사 경험이 있는 대학원 석사생인 유아교육전공자 2명에 의해 수행되었다. 분석을 위해 연구자는 전사본을 반복적으로 정독하였고, 첫 번째 단계에서 먼저 명확하게 에피소드라고 판단되는 부분에 크게 동그라미 표시로 가려내고 그 사건 안에서 주제를 찾아내어 가장 의미가 분명히 드러나는 문장에 줄을 긋고 그 주제를 요약할 수 있는 적절한 제목을 붙이면서 예비범주 작업을 실시했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분석될 주제 영역을 범주화하면서 그 분류항목들을 발전시키는 작업이 이루어졌다. 이때 ‘Cut-and-paste’ 방법을 사용하여 가위로 전사지를 관련 있는 내용끼리 오려서 분류하고, 분석 결과 얻은 내용을 참조하

여 소재목으로 사용될 적합한 표제어를 만들었다. 세 번째 단계에서는 연구주제와 관련한 연구 참여자들의 은유와 그 의미를 분석·해석하였다. 연구의 모든 내용을 해석하는 과정에서 관련 있는 국내외 선행연구와 참고관련 문헌들이 통합되었다. 또한 자료 분석의 타당성을 강화하기 위해 연구 참여자들에게 각각 해석을 확인하고 검토하는 점검과정과 유아교육전문가인 박사학위자 2인과 함께 연구 자료를 검토하고 해석내용을 토론하고 조언 받는 동료검증이 이루어졌다.

III 연구결과 및 해석

본 연구에서는 연구 참여자 10명의 에피소드에 나타난 보육현장의 입학상담 풍토를 5가지로 유형화 할 수 있었다. 이것은 1, 2차에서 수집된 에피소드 중 주로 2차 면담에서 도출된 내용을 중심으로 5개의 소재목이 요약되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수요자 중심 환경에서 발생하는 학부모의 요구 증가, 아버지의 입학상담 참여도 급증, 일 년 내 내 진행되는 입학상담의 속사정, 존경심과 신뢰성의 부재, 갈등의 연속과 행복의 공존이다. 또한 ‘어린이집 입학상담은_____이다.’라는 질문에 살얼음·연애감정·백화점 쇼핑·빙하·보물찾기·가봉한 옷·다람쥐 쳇바퀴·소동 상태·탁구공·유리잔이라는 10개의 은유가 도출되었다.

1. 에피소드에 나타난 보육현장의 입학상담 풍토

1) 수요자 중심 환경에서 발생하는 학부모의 요구 증가

영유아보육법은 2004년 전면개정을 통해 보육서비스의 다양화와 질적 수준 향상, 그리고 보

육에 대한 공적 책임 강화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양육수당, 보육바우처, 보육시설 안전공제회 등 신규로 도입되는 제도를 2008년 12월에 개정하고 이어 2009년에 보육정책 추진방향을 재설정하기 위한 ‘아이사랑플랜’이 수립되었다(김선영·신나리·김향은, 2009). 이와 같이 국가는 부모들에게 양육의 부담을 덜어 주고 아이들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수요자 중심 보육정책’으로 개편하면서 전면적으로 보육바우처 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나 보육시설 입장에서는 그런 역할과 책임을 떠맡게 된 힘겨운 양상으로 여기고 있었다. 이로 인해 여러 문제점이 파생되는데 그 중 입학상담을 하면서 물건을 사고 파는 것처럼 보육료 등을 흥정하고 할인을 스스로 요구하는 부모들을 자주 만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바우처 제도가 확대되고 나니까 부모들 입장에서는 하나의 권력으로 작용되서 적게는 두 명, 많게는 다섯 명씩 몰려다니면서 이것저것 다 물어본 다음에 바로 등록하지 않고 조건을 걸어요. “우리가 단체로 왔으니 입학금은 받지 말라, 원복 값을 내지 말게 해 달라, 혹시 낼 수 있는 교육비 차액을 깎아 달라. 같이 온 부모들의 아동들을 같은 반에 넣어 달라.” 이렇게 상담을 해서 마음에 맞으면 어느 한 곳에 전부 올인 해요. 요즘 아무렇지 않게 이런 행위들을 많이 하시는 데 정말 학부모의 교육적 가치관의 질이 옛날에 비해서 많이 낮아졌다고 생각합니다.

(원장 6, 심층면담, 2010. 11. 16)

이러한 보육바우처 제도는 이용자에게 어린이집을 이전 보다 더욱 자유롭게 선택하고 언제든지 쉽게 바꿀 수 있는 권한을 가지도록 부추기어 ‘학부모의 권력화’를 조장시키는 원인이 되었다고 대부분의 원장들은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었다.

10년 전에는 정부 지원이 다양하지 못했고 개인 부담이 컸기 때문에 비용적인 측면을 고려

해서 입학상담을 받고 나서는 ‘아, 여기는 좀 비싸다. 아니면 여기는 좀 싸다. 그래서 나하고 맞아서 다닌다.’라고 생각했지만, 최근 들어서 경향은 정부 지원이 많이 확대되어 교육비 보조를 받을 수 있는 계층이 폭넓어져서 개인 부담이 많이 줄었어요. 그러다보니 일단 부담이 없어진 상황에서 어머니들은 자신의 욕구에 맞는 어린이집을 선택하는 경향으로 변하고 있어요. 어린이집을 자기 마음대로 사흘마다 바꾸는 경우가 요즘 허다해요. 그것은 어찌 보면 부모님들에게는 권력화로 작용하는 거죠.

(원장 1, 심층면담, 2010. 12. 27)

평가인증을 통해 어린이집이 대개 평준화 되어버린 현상 때문에 평가인증을 받은 곳과 그렇지 못한 곳에 따른 원아모집에 대한 결과적 차이는 크게 보이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평준화 현상은 예전의 입학상담에서는 교육프로그램의 질에 중점을 두었던 것이 지금은 부모의 개인적인 요구를 중심으로 상담되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제 평가인증제도가 도입이 되면서 어린이집에 입학상담 오시는 어머니의 경우에도 평가인증을 한 원을 기준으로 돌아보시기는 하는데 그 평가인증이라는 제도 자체가 어떻게 보면 어린이집의 특성화된 부분 자체를 완화시키고 거의 표준적인 프로그램으로 운영된다는 그런 인식을 부모님들이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원아모집과 별개라고 생각합니다. 예전과 같이 프로그램에 대한 질문보다는 어머니들 생각에는 ‘내 돈 주고 내가 보내는데.’하면서 주로 어머니들 구미에 맞도록 마음대로 조정하려는 듯 그런 느낌도 요즘은 많이 들거든요.

(원장 10, 심층면담, 2010. 11. 15)

‘수요자’의 지나친 요구 증가로 인해 심리적 줄다리기를 벌이면서 서로의 욕구를 협상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 교육자로서 자존감에 상처를 받고 사기를 저하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입학상담 시즌이 되면 원장이 ‘선을 본다’는 느낌이 들 정도예요. 요새 이것을 ‘어린이집 쇼핑’한다고들 말하는데, 어머니들이 여러 분씩 오셔서 혼을 다 빼놓죠. 원장의 입장에서는 모두 등록시켰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이 있고 학부모 입장에서는 그런 원장을 역이용해서 이것저것 물어 보면서 우리 아이들 다 같이 보내면 입학금의 얼마정도 혜택을 줄 수 있냐고 흥정과 쇼핑하듯이 물어요. 교육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럴 땐 저의 사기가 와르르 무너져요.

(원장 3, 심층면담, 2010. 10. 08)

입학상담을 할 때 학부모의 요구사항과 질문 사항이 복잡해지고 많이 까다로워져서 그 요구를 다 수용하거나 혹은 거절할 수도 없는 난감한 상황임을 알 수 있었다. 입학상담 시 힘의 무게가 실제적으로 학부모 쪽으로 치우쳐 있다 보니 원장들 입장에서는 불만스러운 결과를 경험하게 되고 그로 인해 부정적 정서를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원아모집만 잘되면 차량운행을 먼 데 가거나 똑같은 장소를 두 번 가지 않아도 되고... 부모들이 요구하는 사항도 어느 적정선에서 끊을 수가 있는데 아이들 모집하기 힘들다보니까 입학상담에 와서 부모들이 요구하지 말아야 될 것까지 서슴없이 부탁하는 것도 울며 겨자 먹기로 들어주게 되요. 요새는 한층 더 심해졌어요. 하지만 그렇게 해서라도 아이 한 명을 더 모집하고 싶어요...부족한 정원을 채우려면 어쩔 수 없잖아요. 많이 답답해요.

(원장 2, 심층면담, 2010. 11. 18)

요새 학부모들이 입학상담 할 때 요구사항과 관심영역에 대한 질문이 지나치게 많고, 어린이집 시설도 더욱 꼼꼼히 둘러보는 경향이 있어서 예전보다 상담소요 시간이 많이 길어졌다. 그렇지만 상담 후 바로 입학하는 경우는 100% 드물기 때문에 이런 과정이 계속적으로 반복되다 보니 굉장히 지치고 어떨 때는 짜증스럽다.

(원장 7, 전화면담, 2010. 12. 23)

어린이집을 경영하고 재정을 책임지는 원장들에게 있어 ‘원아모집을 위한 입학상담’은 그 자체 만으로도 긴장되고 부담스러울 수 있다. 특히 상식적으로 예외에 어긋난 학부모를 만나면 그들의 스트레스는 더욱 심해지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상담할 때 딱 요점만 이야기 하고 가면 좋겠는데... 너무 힘들게 하는 학부모들이 있어요. 보통 열시에 와서 어린이집에서 점심까지 먹고 한시까지... 자기 아이에게 “교실 가서 친구들과 같이 놀고 와.”하면서 “엄마 여기 있을게.” 합니다. 그러면 아이는 교실로 화장실로 여기 저기 막무가내로 들어갔다 나왔다 정신없이 하니 수업에 방해가 되죠. 이걸 처음 입학상담 하러 온 엄마들의 기본예절은 아니잖아요. 이런 경험들이 요새 종종 있어요. 이럴 때 정말 스트레스 많이 받아요.

(원장 1, 심층면담, 2010. 10. 04)

부모와의 상호교류 방법 중 하나로서 학기에 실시되는 부모상담은 유아의 전인적 발달과 성장, 문제행동지도와 교육환경에 대한 정보 교환에 이르기까지 어떤 문제에 대해 함께 효율적으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협력하는 소통의 기회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교육상담과 달리 원아모집을 위한 입학상담은 일회성으로 진행되며 대체적으로 보육시설이 국가에서 수행되는 보육사업 및 보육정책의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해마다 정책적인 방향전환과 교육정책의 변화에 따라 그 가중되는 부분이 점차적으로 늘어나 어려움이 초래된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었다.

학기 중에 실시되는 부모와의 개별상담이나 집단상담은 이제 교육경력이 많다보니 별 어려움이 없는데, 이 ‘입학상담’은 왜 이렇게 해가 가면 갈수록 더 어려워지는지...

(원장 10, 심층면담, 2010. 11. 15).

2) 아버지의 입학상담 참여도 급증

최근 들어 자녀양육 있어서 아버지의 역할참

여가 두드러지면서(정옥분 · 정순화 · 김경은 · 박연정, 2007) 이로 인해 전통적인 아버지의 역할에 변화가 생기고 시대적 흐름에 맞게 재조명되고 있다. 이에 윤서영과 정옥분(1999)의 연구에서 아버지 역할수행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처럼 자녀양육에 아버지가 자신만의 고유한 역할이 있음을 인식하고 이를 기꺼이 받아들여 효과적인 역할수행을 할 때 가족적응, 대인적응, 자아적응, 정서적응의 모든 면에서 자녀의 사회적 적응력이 높아진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아버지가 능동적으로 입학상담에 참여하는 것은 참으로 반가운 일이며 아동의 바람직한 성장과 발달을 위해 원장과 부모가 훌륭한 동반자관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큰 것을 알 수 있었다.

예전에는 대부분 어머니가 주축이 되어서 상담하고 아이의 입학결정을 아버지와의 상담한 경험은 거의 없었어요. 그런데 최근에는 아버지들이 같이 오셔서 상담을 하고 결정하는 부분이 많아졌어요. 이번 입학상담 중에 저소득층 가정으로 통담집을 하는 부부가 오셨는데 아버지가 특히 교육과 육아에 관심이 많으셨어요. 그 아이는 정상 아이보다 좀 특별했고 그러다 보니 아버지가 더 참여하고 적극적으로 교육에 관심을 보이면서 입학결정을 결정하는 것 같았어요. 여러 원들을 찾아갔지만 적당한 곳을 찾지 못했는데 저의 원을 둘러보시고 만족해하시고 저도 흔쾌히 입학받아 들어서 부부는 너무나 고마웠어요. 평범하지 않은 아이의 상태나 어려운 가정환경 속에서도 부모가 함께 적극적으로 아이를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뭉클했어요.

(원장 4, 심층면담, 2010. 10. 19)

요즘 평균적으로 볼 때 입학상담에 ‘부부’가 함께 방문하는 경우가 많으며 거의 80% 이상을 차지한다. (원장 5, 전화면담, 2010. 12. 22)

3) 일 년 내내 진행되는 입학상담의 속시정

어린이집 특성상 영아보육이 이루어지므로 젊은 부모들과 영아들이 많고 또한 직장의 이동과

여러 가지 변수가 작용하여 원아의 입·퇴소 비율이 높은 편이다. 특히 유치원은 교육을 중점적으로 한다는 부모들의 고정관념 때문에 어린이집을 다니다가 6~7세만 되면 자연스럽게 유치원에 입학시키려고 자녀를 퇴소시키는 경우가 있음을 원장들은 지적하고 있었다. 특히 요즘 급격한 저출산 문제와 함께 유형별 보육시설의 수는 상대적으로 많고 또 유치원과도 경쟁적으로 원아모집을 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 언제 빠져나갈지 모르는 불안한 정원을 위해 늘 입학상담을 염두 해 두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지금 입학상담 기간이긴 한데 요즘 들어 변수가 많은 것 같아요. 해마다 아이들이 줄다 보니까 상담횟수라던가 이런 게 변동이 좀 있어요. 실 정상 유치원에서 어느 정도 원아모집이 끝나면 어린이집을 방문 하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유치원들보다 어린이집들은 내년으로 넘어가서 신학기까지 이어지는 게 현실이에요. 아이들 연령이 어리고 부모님 상황에 따라 이동이 잦다보니 긴장하면서 일 년 내내 원아모집을 걱정하고 있어요. (원장 9, 심층면담, 2010. 11. 30)

부모님들이 입학상담 왔을 때 유치원을 한 수준 높게 보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어린이집에 상담하러 오시는 분이 많아요. 좋은 교육프로그램을 아무리 강조해서 말해도 ‘유치원만 교육 하는 곳이다.’라는 생각은 여전 하신 것 같아요. 이럴 땐 우울하죠. 자녀가 6~7세가 되면 자연스럽게 유치원으로 옮기다 보니 어린이집은 부족한 정원을 채우기 위해 늘 원아모집을 할 수 밖에 없어요. (원장 8, 심층면담, 2010. 11. 05)

4) 존경심과 신뢰성의 부재

Ramsey(2004)는 가족과 학교와의 관계를 “상호간에 존경하는 파트너”라고 말하면서 서로의 이해와 배려를 강조했다. 그러나 요즘 원장들은 때때로 ‘존경심의 실종’과 같은 감정을 느끼고 있었다. 전윤숙(2010)이 그의 연구에서 원장들이 스스로 인식하는 이미지를 비유한 것 중에 ‘하인’이

라고 밝힌 바와 같이, 지금 상황적으로 어린이집 원장들이 교육적 소신을 가지고 입학상담을 실시하기에는 많은 제약이 따름을 알 수 있었다.

요즘 어머니들의 요구에 이렇게 “예예~.” 무조건 순응하는 자세로 입학상담을 해야지, 원장이 자기 생각이나 교육철학을 내세우다보면 어머니들은 ‘아, 여긴 나랑 안 맞구나.’ 하면서 이웃의 다른 어머니들에게 부정적인 인상을 미리 주시니까 말하기가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원장 6, 심층면담, 2010. 12. 27)

서로의 욕구가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평형이 깨지면 불신감이 조성되어 원만한 의사소통과 관계형성이 어려워짐을 알 수 있었다.

학부모들이 입학상담 하러 와서 “혹시 여기는 아이 때리는 교사는 없나요?” 이렇게 노골적으로 물으시는 부모님도 계시요. 어머니 심정은 충분히 이해는 가지만... 그런 질문을 쉽게 하시니까 너무나 기가 막히고 당황스럽죠. (원장 8, 심층면담, 2010. 12. 29)

“어머니, 서로 간의 신뢰감이 중요합니다. 어머니가 이렇게 우리 원에 처음 오셔서 냉장고와 주방까지 열어보실 그런 마음이라면 어린이집이 주변에 많으니 차라리 다른 원을 찾아보시는 게 낫겠어요! 늘 아이가 어떻게 지내는지 실시간으로 볼 수 없는 상황에서 믿음밖에 중요한 게 없잖아요” 라고 정색을 하면서 말했어요. ‘만남’이란 게 서로 간에 즐겁고 설레고 제가 이 아이와 인연이 되어서 어떤 교육계획을 세우고 그해야 하는데, 첫 만남에서 이렇게 하는 경우 그런 어머니와 정말 아무 인연도 안 맺고 싶거든요. (원장 10, 심층면담, 2010. 12. 30)

‘돌아서면 어린이집’이라는 말이 있듯이 현재 많은 수의 보육시설들이 존재하고 그 질적인 수준은 어느 정도 차별이 있어서 부모들이 어린이집을 결정할 때 혼란스러울 수 있다. 이에 임유순(2008)은 보육시설을 처음 탐색하는 과정에서 부모들의 정보 출처를 살펴 본 결과, 자녀를 보

육시설에 보낸 경험이 있는 사람에게 묻는다는 답변이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이웃사람과 인터넷 순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학부모가 이웃사람과 인터넷을 통해 유아교육관련 정보를 홍수처럼 얻다보니 정보의 신뢰성에 문제가 있음을 인지하지 못한 채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으며, 자신이 알고 있는 것들을 원장이나 교사가 알고 있는지 시험 삼아 테스트하려는 부모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요즘은 어머님들이 매체를 이용한 정보가 많다 보니까, 아이들에 대한 프로그램에 관해서 정보를 많이 가지고 오십니다. 특히 교사들에 관해서도. 자격을 갖추지 못한 교사들이나 자질이 부족한 교사들이 많이 배출되고 또 짧은 시간을 이수하고 보육교사 자격증을 얻고 나오시는 분들... 어머님들도 그런 교사에 대해 아시고는 자신이 아는 정보들을 가지고 원장이나 교사들을 시험하려고 해요. '이런 거는 알고 있는가?' 하면서 새로운 정보를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를 알아보기 위해 테스트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어머님들이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오시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웃지 못 할 그런 에피소드가 종종 벌어집니다.

(원장 9, 심층면담, 2010. 10. 29)

부모들의 요구에 대처하는 방법 중에 '꼭 이 사람을 입학 시켜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 보다는 허심탄회하게 부모의 이야기를 다 듣고, 학부모의 요구가 무엇일까를 생각을 해 본 다음에, 원에서 해 줄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교육적 배려를 중심으로 상담하고, 그 다음에 부모의 욕구와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최대한 맞추고 안 될 것은 확실히 안 된다고 말한 다음에, 입학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입학상담 시에 스트레스를 덜 받는 나름대로의 방법임을 알 수 있었다. 이것은 그동안 시행착오를 통해 얻은 결과로 보여진다.

제가 21년 경력 동안 입학상담을 하면서 핵심 포인트는 내가 해 줄 수 있는 부분과 해 줄 수

없는 부분을 미리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면 서로 상호 간에 특별히 신뢰하지 못해서 오는 불평불만이 좀 더 감소된다고 볼 수 있어요. (원장 6, 심층면담, 2010. 12. 18)

5) 갈등의 연속과 행복의 공존

김영애(2008)의 연구에서 학부모가 보육시설 선택 시 고려하는 기준을 볼 때 먼저 보육환경, 청결상태, 교사의 자질, 보육프로그램, 원장의 교육철학, 식단 순으로 고려한다고 보고하였다. 이처럼 '보육환경'은 입학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이나 원아모집의 어려움과 재정지원의 부족함으로 경영난을 겪는 원장들에게는 경제적 큰 부담을 안고 그 요구를 충족시키기에 무리수가 따름을 알 수 있었다. 그래서 시설투자에 대한 고민과 동시에 폐원을 생각하는 갈등의 연속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부모가 처음 원에 방문해서 환경적인 면이나 시설적인 부분을 보고 선택의 기준을 삼는 것 같아요. 어머님들의 이런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시설장이 시설에 대한 투자를 지속적으로 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려니 자금이나 이런 것들은 한계가 있고 계속 딜레마에 빠져요. 그래서 문을 닫을까도 생각해봐요. 이런 갈등을 계속하니까 요즘은 입학상담을 하면서 의욕이 점점 없어져요.

(원장 5, 심층면담, 2010. 10. 29)

입학상담을 통해 처음 학부모와 '관계'를 맺으면서 원활한 '소통'을 만들어가는 작업이 때로는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도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새로운 사람을 만나서 서로를 알아가고 이해하면서 신뢰감이 형성되면 공동의 목표인 아동의 바람직한 성장과 발달을 위해 직접적으로 도울 수 있는 역할을 지속적으로 공유할 수 있고, Gordon과 Browne(2004)이 밝힌 바와 같이 부모가 교육기관에서 운영되는 모든 일에 기여하여 능동적으로 그 안에 소속되는 것을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학부모님이 처음에는 외형적인 건물을 보고 두 번째는 보육프로그램에 대해 듣고 망설이면서 저희 원에 찾아 왔다가 상담을 통해서 저의 어떤 한 인간적인 면을 좋게 보고 원장까지 ‘정말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입학상담은 성공하는 거죠. 자기 아이만 보내려 왔다가 주위에 있는 아이들도 다 한몫에 몰고 오신 어머니가 몇 분 계셨어요. 그럴 때 기분이 너무너무 좋고요. 이제 인간적으로 친해져서 어린이집 일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도와줍니다. 그리고 저의 왕 팬이 되었어요.

(원장 2, 심층면담, 2010. 10. 06)

입학 상담에서 만나는 아이들이 미래를 짊어지고 갈 꿈나무들이잖아요. 그런 아이들을 위해 더 우리가 밀거름이 되고 대들보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니 자부심도 생기고 이런 사명감이 저에게는 행복이에요.

(원장 8, 심층면담, 2010. 12. 16)

2. 은유를 통한 입학상담의 정서적 의미

Yero(2002)의 연구에 따르면, 교사들은 전형적으로 자신의 일 속에서 ‘은유’라는 ‘정신적인 과정’을 자주 사용한다고 밝혔다. “내 교실은 동물원이다.”를 예로 들면, 동물원에 비유한 한 것은 교사가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그의 교실이 매우 흥미 있고 독특한 환경으로 인지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한 사람의 개념적 범주, 경험 혹은 사고 등이 포함된 것으로 그 안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다. 이처럼 은유를 만든 사람은 그 안에 개인의 의미와 해석을 담기 때문에 본래 가진 의미를 초월한 창조성이 높은 이미지 활동으로도 볼 수 있다. 교육현장에서 은유를 사용한 선행연구는 Bloom(2000)이 유아교육기관의 지도자들에게 자신의 역할에 대한 인식을 인터뷰하고 언어적 은유법을 사용해 데이터를 분석했고, 우리나라에서는 이춘자(2010)가 예비유아교

사들에게 내면적인 지식을 밖으로 드러내게 하는 은유를 통하여 유치원 교사에 대한 이미지를 분석하였으며, 전윤숙(2010)은 원장 스스로 인식하는 원장 이미지에 대한 은유의 표현을 통해 원장의 리더십을 분석하였다. 이처럼 최근에는 은유법을 교사의 신념이나 사고 과정을 연구하는 방법으로 활용하고 있다(이은화, 2005). 다음은 원장들의 어린이집 입학상담에 대한 은유적 표현 속에 내면화된 정서적 의미에 관한 것이다.

1) 절망감 : 입학상담은 **빙하** 이다.

깊고 깊은 바다위의 얼음은 일시적으로 단단하다. 지금 나의 어린이집은 정부의 테두리 안에 있고 불확실한 시스템 속에서 빙하처럼 끝도 없고 차가운 풍뎡 얼은 느낌으로 존재감마저 없었다.

(원장 4)

2) 분노 : 입학상담은 **가뭇한 옷** 이다.

3세는 337,000원, 4세는 278,000원, 5세는 237,000원 등 정부가 얼마를 받으라고 책정 한 대로 하는 것이 ‘셋팅’ 된 것에서 옷을 가뭇하는 것과 똑같다. 입학상담 오는 학부모들도 이미 금액을 다 알고 있고, 독자적으로 무언가를 할 수 없어 화가 난다. 보육바우처 제도 등.

(원장 6)

입학상담은 **백화점 쇼핑** 이다.

입소문을 듣고 이 곳 저 곳으로 돌면서 어떤 물건이 좋다면 우르르 몰려가서 구매하거나 그냥 이것저것 물어보면서 할인혜택이나 끼워 팔기 항목을 찾는 것이 요즘 학부모들의 입학상담 과정에서 많이 벌어지는 일이다. 이걸 교육현장에서 말도 안 되는 일이다.

(원장 3)

3) 무기력 : 입학상담은 **다림질 쳇바퀴** 이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원아모집 기간에 기다림으로 인한 설레임이 있었는데 요즘은 원아모집이 일 년 내내 이루어지기 때문에 특별한 느낌이 없다.

(원장 7)

4) 긴장감 : 입학상담은 **살얼음** 이다.

일 년 내내 원아모집 걱정과 그로인한 경영의 어려움 때문에 조마조마 하는 마음으로 원아모집 기간을 맞이한다. 지금 몸을 움츠리고 조심스럽게 살얼음 위를 지나가고 있는 심정이다.
(원장 1)

입학상담은 **탁구공** 이다.

원장이 아무리 입학상담을 잘해도 부모님에게 결정권이 있고 또 교육기관과 입학 관련 정보도 많이 알고 계셔서 어느 원으로 갈지 몰라서 마치 어디로 튈지 모르는 탁구공 같다.
(원장 9)

5) 두려움 : 입학상담은 **유리잔** 이다.

다루기 힘든 유리잔 같다. 시대적으로 급속히 변화하는 세상에서 사람들의 매너와 생각 자체도 변화하기 때문에 원아모집 시기 전인 8월 쯤 지나서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부모들과 입학상담을 할 생각을 하니 그때부터 머리가 아파온다. 첫 만남이 설레고 기대감이 들어야 하는데, ‘어떻게 하면 유리잔을 깨뜨리지 않고 잘 다루어서 반짝 반짝하는 잔을 만들까’ 하는 그런 생각만 들고, 한편으로는 그런 것이 힘들게 느껴지고 자신감이 없어지기도 한다.
(원장 10)

입학상담은 **소등상태** 이다.

정전되었을 때 밀려오는 두려움이다. 어린이집 상황이 지금 암흑상태이다. 나의 교육철학을 펼치면서 의욕적으로 교육할 수 없다는 오늘의 현실이 슬프다.
(원장 8)

6) 간절함 : 입학상담은 **연애감정** 이다.

연애할 때는 상대방에게 잘 보이려고 하고, 비위도 맞추고 애교도 부리는 등 좋은 모습만 보여주려고 한다. 그래서 나를 좋아하도록 만들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이런 모습처럼 입학상담을 할 때도 내 욕구보다는 상대방의 욕구를 우선으로 하면서 입학등록이 성공하도록 갖은 애를 쓴다.
(원장 2)

입학상담은 **보물찾기** 이다.

저출산 확대로 아이가 많이 없다 보니 어린이집

에 입학할 아이를 찾기가 정말 어렵다.
(원장 5)

종합적으로 볼 때, 어린이집 원장들이 입학상담에 대한 자신의 경험과 생각을 모아 살얼음·연애감정·백화점 쇼핑·빙하·보물찾기·가봉한 옷·다람쥐 쳇바퀴·소등 상태·탁구공·유리잔이라는 자신만의 독특한 이미지로 표출하였다. 그 안에 내면화된 정서적 의미를 범주화한 결과 빙하는 절망감, 가봉한 옷과 백화점 쇼핑은 분노, 다람쥐 쳇바퀴는 무기력, 살얼음과 탁구공은 긴장감, 유리잔과 소등상태는 두려움, 연애감정과 보물찾기는 간절함이 드러났다.

현재 보육현장에서 펼쳐지는 입학상담의 실체는 무겁고 단단하게 얼은 빙하처럼 막막하고, 틀에 박혀 꼼작할 수 없는 현실과 고귀한 교육현장에서 흥정과 할인을 요구하며 무례한 언행을 일삼는 학부모에 대한 분노, 원아모집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고 또 부족한 원아 수를 채우기 위해 수시로 하는 입학상담에 대해 어떠한 설레임이나 의욕이 없는 무기력한 상태, 늘 원아모집에 대한 걱정과 한 명의 원아라도 잡기 위해 입학상담 시 열심히 노력하지만 결정권이 부모들에게 있기 때문에 그 선택만을 기다리는 초조하고 긴장된 순간들, 교육자로서 교육철학을 내세울 수 없이 시대적 흐름에 합류해야 하는 암흑 같은 현실과 부모들이 이번에는 어떤 높은 요구들을 내세울까 미리부터 걱정하며 불안해하고 또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할 것 같은 두려움, 신입원아를 찾기 위한 분주함으로 갖은 애를 쓰면서 입학등록이 이루어지길 원하는 간절한 마음이었다. 이처럼 정서란 대부분 어떤 사건에 대한 해석(Plutchik, 2003/2006)을 담고 있어서 현재 입학상담은 원장들에게 있어 긍정적 정서보다는 부정적 정서를 주로 경험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끝으로, 이처럼 본 연구에서 입학상담에 대한 에피소드와 은유적 접근을 함께 연결고리로 시도한 것은, Rumelhart(1975)의 연구에서 이야기의 구조가 배경과 에피소드로 구성되고, 에피소드는 다시 사건과 반응으로, 반응은 내적 반응과 외적 반응으로 나뉘며, 내적 반응은 정서(emotion)를 표현하고 외적반응은 행동을 나타내는 구조를 가진다는 것을 근거로 하여, 이 둘의 만남은 입학상담의 경험 이야기를 더욱 풍부하도록 서로 돕고 있다는 판단에 있었다. 에피소드 속에 담긴 개인의 정서나 생각의 내적 반응을 은유라는 이미지 혹은 정신적 과정을 통해 그 정서적 의미를 분석하여 현재 입학상담 풍토 속에서 벌어지는 사람들의 행위가 지니는 의미를 발견하는데 그 가치를 두었다.

IV. 논의 및 제언

본 연구는 10명의 민간어린이집 원장의 관점에서 본 지금-여기의 입학상담 풍토는 어떠하며 입학상담에 대한 정서적 의미는 무엇인지를 각각 에피소드 연구법과 은유법을 통해 그 연구결과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에피소드에 나타난 보육현장의 입학상담 풍토는 수요자 중심 환경에서 발생하는 학부모의 요구 증가, 아버지의 입학상담 참여도 급증, 일 년 내 내 진행되는 입학상담의 속사정, 존경심과 신뢰성의 부재, 갈등의 연속과 행복이 공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어린이집 입학상담은_____이다.’라는 은유를 통해 입학상담에 대한 정서적 의미를 절망감, 분노, 무기력, 긴장감, 두려움 같은 부정적 정서와 간절함을 경험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개선점이나 방향제시에 대한 논의를 전개해보면 다음과 같다.

1. 어린이집 입학상담 에피소드에 나타난 보육현장의 입학상담 풍토에 대한 논의

첫째, 2009년 새 정부의 공약 및 국정철학에 부합하는 보육정책 추진방향을 재설정하면서 「노동적 복지」 구현을 위해 보육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 수요자 중심 보육정책으로 개편하였다. 이를 위해 발표 한 보육사업 지원체계 구축의 6대 추진과제 중 부모의 비용부담 완화, 수요자 맞춤 지원은 부모들의 양육부담을 최소화하고 아이들에게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자 하는 목적으로 수립되었으나 본 연구결과를 보면서 과연 ‘진정한 수요자 중심 보육정책은 무엇인가’ 하는 의문점을 가지게 한다. 수요자 중심 보육정책의 일환으로 실시된 보육바우처 제도는 학부모의 요구 수준을 턱없이 높이는 계기가 되었으며, 부모들이 그룹을 형성하여 몰려다니면서 조건제시와 함께 보육료, 입학금과 원복비 등을 흥정하는 행위들이 비일비재하게 나타나고, 정부 지원의 확대로 보육바우처를 통해 더욱 보육시설의 선택권이 자유로워지면서 부모의 욕구와 맞물려 빈번하게 어린이집을 바꾸는 문제점들이 발생되어 이를 경험하는 원장들은 이것을 ‘학부모의 권력화’라는 부정적인 이미지로 받아들여지게 되었다. 더욱이 어린이집의 존폐와 관련된 원아모집은 평가인증의 통과 여부와 그다지 관련이 적음을 본 연구에서 알 수 있듯이, 국가의 재정적 지원이 부족한 상태에서 떠 맡겨지듯 안게 된 질 높은 보육 서비스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수행할 것인지에 대한 원장들의 고충과 보육시설 간에 질적 경쟁을 유도하게 만드는 정책적 환경은 원장의 교육경력과 원의 규모와 관계없이 원아모집과 입학상담에 대한 부담이 커지는 가운데 수요자 중심 보육정책의 구현이 가능할 것인가? 따라서 ‘수요자 중심

보육정책'에 관계된 부모나 시설장, 보육교사들이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각계각층에서의 논의가 구체적으로 되어야 한다. 그 논의의 귀결은 보육시설, 원장, 교사, 부모와 아동이 '공생'하는 방안을 모색하여 보육정책에 수립되도록 하는 적극성이 지금 절실히 요구된다.

둘째, 어린이집 입학상담에 아버지의 참여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은 급격한 사회경제적 변화로 인해 가족구조의 변화와 더불어 최근에는 취업모 가정이 더욱 급증하면서 아버지의 역할이 새롭게 바뀌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이다. 아버지의 적극적인 양육참여는 어머니로 하여금 육아에 대한 짐을 줄여 줄 뿐만 아니라 어머니와 구별되는 아버지의 양육행동 특성은 다양한 상호작용과 흥미로운 경험을 제공하기 때문에 아버지의 양육참여도의 중요성이 현재 부각되고 있으며 아동의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의 결과(김광웅 · 이인수, 1998; 설경옥 · 문혁준, 2006; 장영애 · 이영자, 2008; 최경순 · 정현희, 1995; 황순영 · 정영숙 · 우수경, 2005; Lamb, 1997)를 살펴 볼 때 입학상담에 아버지가 참여하는 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이다. 따라서 입학상담 과정에서 원장과 아버지와의 원만한 의사소통을 위한 전략도 염두 해 둘 일이다. 이것을 부모교육 차원에서 보면, 부모들의 입학상담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고 지속적으로 좋은 아버지, 어머니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적용하여 부모교육의 질적 수준을 도모해야 한다. 이에 Sciarra와 Dorsey (2003)는 활동적인 부모교육 프로그램 방법으로 교육기관의 담당자들과 일대일 혹은 소그룹 토의를 하고 강의, 워크숍과 세미나 등을 통해 정확한 정보와 실재를 배우고 서로의 요구를 조절하고 적절하게 표현하는 것을 통해 부모도 개인

적으로 발전을 이룬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의 교육기관에서도 이처럼 전문적인 부모교육 센터와 교육전문가들이 배치되어서 부모의 개인적인 욕구보다는 자녀의 바람직한 발달과 성장에 중점을 둔 '부모의 역할'과 '좋은 부모 되기'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제공해야 할 것이다.

셋째, 현실적으로 원아모집은 보육시설의 존립여부를 결정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에 유치원에 비해 아동의 입 · 퇴소가 빈번한 어린이집은 수시로 원아모집이 진행되므로 효과적인 입학상담을 위한 차별화된 대안이 필요하겠 다. 다시 말하면, 단순하게 홍보목적은 원아모집에만 두기 보다는 가정과의 원활한 관계를 통하여 유아교육의 효과를 높이고 더 나아가 지역사회와의 화합 분위기 조성에 도움을(김수향 · 이용주 · 이은진, 2008) 주고자 노력하면서 지역주민의 입소문을 통한 효과적인 홍보 아이디어가 마련되어야 한다. 따라서 김선영 · 신나리와 김향은(2009)의 연구에 의하면, 보육정책 연구의 최근 관심사는 영유아보육제도의 지속적인 개선, 합리적인 보육평가제 구축, 장애아 보육, 방과후 보육, 결혼이주민자녀 보육, 지역거점 보육 등 아동, 가족, 지역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는 보육서비스의 개발과 지원에 관한 것으로 이는 다양화되고 특성화된 보육서비스의 요구와 그 중요성이 커지면서 입학상담에서 더욱 전문적이고 활발한 상담이 이루어질 것이라 본다.

넷째, 최근 보육현장에서는 원장이나 보육교사에게 학부모가 존경심이나 신뢰감을 가지기가 좀처럼 어려워졌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한 유아교육기관에서 불미스러운 사건이 발생되면 언론매체의 보도를 접하는 보육서비스의 실수요자인 부모는 불안하게 되고 많은 보육시설은 그 보도 자체만으로도 부정적인 평가를 받는 것이 요즘 현실이다. 이러한 파장은 부모와의 관계형

성 초기단계인 입학상담에서 여실히 드러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한편 질 좋은 보육을 위해 교사의 자질에 대한 논의도 시급한 문제로써 최근 관심사는 유아교사의 전문성 발달을 다룬 여러 선행연구들(김현자, 2008; 유준호·이진화, 2006; 이영석·이세나, 2004; 이해경, 2010; 조형숙·이경민, 2004; 최현미, 2008; 황보영란, 2003; Feeny, Moravcik, Nolte, & Christensen, 2010)이 날로 늘고 있다. 이러한 교사의 질은 이제 보육시설만의 과제가 아니라 국가적으로 보육정책에서 실효성 있게 거론되어야 하고 그 활성화 방안을 찾아야 한다.

마지막으로, 원장들은 운영관리에 어려움으로 심지어 폐원까지도 고려하면서 갈등을 경험하지만 마음속에는 늘 교육적 사명감으로 행복한 마음이 공존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대균과 최서영(2008)의 연구에서 사립유치원 원장으로 있게 하는 이유 두 가지는 아이들의 변화와 학부모로부터 감사의 인사를 받을 때라고 밝힌 것과 비슷한 맥락에서 보람을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2. 은유를 통한 입학상담의 정서적 의미에 대한 논의

본 연구에서는 민간어린이집 원장과 학부모간의 입학상담 과정에서 어떤 에피소드가 주로 발생되는지와 입학상담에 대해 살얼음, 연애감정, 백화점 쇼핑, 빙하, 보물찾기, 가봉한 옷, 다람쥐 쳇바퀴, 소동 상태, 탁구공, 유리잔이라는 은유적 표현을 통해 정서적 의미를 분석하고, 원장의 관점을 통해 학부모의 어린이집 선택 시 요구를 살펴봄으로써 현재 보육현장의 세계를 탐색해 볼 수 있었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를 찾을 수 있다. 그러나 열 가지 은유가 대부분 절망감, 분

노, 무기력, 긴장감, 두려움 같은 부정적 정서와 간절함의 정서가 나타났다는 점에서 이것을 대표적 결과라고 보기에 다소 무리가 있을 수 있겠지만 이러한 은유들은 최근 실제 보육현장의 세계를 암시적으로 표현해 주고 있으며 강한 메시지로 전달하는 기능을 가지게 한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따라서 열 가지 은유에 나타난 ‘입학상담’이라는 사건을 단순한 낚두리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 사려 깊은 관심과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이상과 같은 연구결과와 제시한 논의를 기초로 하여 제한점과 함께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을 몇 가지 덧붙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 연구대상을 경상북도에 한정했다는 점과 연구방법에서 참여자인 원장들의 연령(34~52세), 경력(9년~26년), 규모(50명 이상~100명 이상) 면에서 차이가 입학상담에 미치는 영향이 통제되지 않은 채 연구결과가 수집되었다는 제한점이 있어 연구결과를 일반화하기에 약간의 무리가 따름도 지적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의 보육시설은 사회적으로 아동수요 감소와 정부가 국가적 차원에서 실시되는 ‘수요자 중심 보육정책’ 사업들의 영향을 받는 동일한 환경에 처해있어서 어떤 다른 여건이 큰 결과적 차이를 보인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본 연구결과에 공감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으로 가늠된다. ‘지금’이라는 시간적 개념과 ‘여기’라는 공간적 개념이 존재하는 현재 입학상담이 일어나는 ‘지금-여기(here and now)’에서 보육현장의 세계를 본다는 점에 중점을 두었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입학상담이라는 연구주제를 가지고 최근 보육현장의 풍토를 살펴보고자 어린이집 원장들을 대상으로 그들의 관점에서만 보았으나 학부모는 또한 입학상담에 대해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는지 다른 목소리를 통해

알아보는 것도 객관적으로 보육현장의 ‘실제’를 파악하는 데 필요한 일이므로 이들에 대한 질적 연구가 이루어지는 것도 바람직할 것이다.

셋째, 입학상담에 대한 연구 참여자를 민간보육시설(14,677개소)의 시설장 뿐만 아니라 2010년 말 현재 보육시설(38,021개소) 중 제일 많이 차지하고 있는 가정보육시설(19,367개소)을 비롯하여 국·공립보육시설(2,034개소), 법인보육시설(1,468개소), 직장보육시설(401개소)과 부모협동보육시설(74개소)의 시설장을 대상으로 양적 및 질적 연구를 혼합하여 실시해서 최근에 각 유형별 보육시설의 입학상담 풍토를 살펴보는 것도 가치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넷째, 연구를 위한 자료 수집에서 면담자료와 실제 입학상담을 실시한 녹음 자료를 가지고 분석 및 해석을 하였으나 더욱 생동감 있는 보육현장의 풍토를 알기 위해서 입학상담을 비디오로 녹화한 자료를 수집하는 것도 현장감을 높이는 데 효과적일 것이다.

참 고 문 헌

- 강문희·윤애희·이경희·정정옥(2007). **유치원·보육시설 운영관리**. 서울: 학지사.
- 강선화(2008). 유아교육기관에서의 부모면담에 관한 교사와 부모의 인식. *총신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권대원(2008). **불교 유치원 교사 지원을 위한 유아교육과정**. 서울: 양서원.
- 김광웅·이인수(1998). 아버지의 양육참여도와 유아의 사회적 능력. *아동학회지*, 19(2), 65-75.
- 김기수(2001). 은유와 아이러니의 습득. *영어영문학연구*, 43(2), 189-209.
- 김미숙(2008). 보육시설장의 직무만족 및 직무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부경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병옥(2007). **교육사회학**. 서울: 학지사.
- 김선영·신나리·김향은(2009). 보육. *아동학회지*, 30(6), 267-279.
- 김수향·이용주·이은진(2008). **유아교육기관 운영관리**. 서울: 동문사.
- 김영옥·홍지명·김세루·김권일(2008). 유아교육기관의 부모상담 현황 및 교사와 부모의 요구 분석. *유아교육학논집*, 12(1), 165-191.
- 김영애(2008). 학부모의 보육시설 선택기준 분석-평가인증제 중심으로-. *아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용남(2001). 부모교육으로서 부모면담이 갖는 효과에 대한 연구. *경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현자(2008). 유아교사 전문성 관련 논의의 접근방법과 내용분석. *열린유아교육연구*, 13(5), 197-221.
- 당동진·박희진·박종안·손부순·이종화(2006). 초등학교 교사의 직무스트레스의 특성. *순천향자연과학연구논문집*, 12(1), 5-10.
- 보건복지가족부(2009. 4). **아이사랑플랜 2009-2012**. 보건복지가족부.
- 보건복지가족부(2009). **2009년 전국보육실태조사 : 보육시설조사 보고서**. 발간등록 번호 11-1351000-000626-13.
- 보건복지부(2011. 4). **2010년 보육통계** <http://www.stat.mw.go.kr>에서 2011년 5월 4일 인출.
- 설경옥·문혁준(2006). 아버지의 양육참여도 및 심리적 자세와 유아의 친사회적 행동. *대한가정학회지*, 44(7), 1-9.
- 우민정·김지혜·한지희(2009). 초임교사의 부모면담에 대한 어려움과 교사교육의 방향에 관한 연구. *유아교육학논집*, 13(2), 59-80.
- 유준호·이진화(2006). 전문성 발달을 위한 실행연구의 활용. *영유아교육연구*, 9, 5-25.
- 윤서영·정옥분(1999). 아버지의 역할수행과 아동의 사회적 적응과의 관계. *아동학회지*, 20(2), 1-23.
- 이대균·최서영(2008). 사립유치원 원장의 고충과 보람, 그리고 희망. *열린유아교육연구*, 13(1), 177-203.

- 이영석 · 이세나(2004). 유아교사의 전문성 개발을 위한 소고. **미래유아교육학회지**, 11(4), 229-254.
- 이윤주 · 양정국(2007). **밀턴 에릭슨 상담의 핵심은 유아 측면**. 서울: 학지사.
- 이은화(2005). **유아교사론**. 서울: 창지사.
- 이춘자(2010). 예비유아교사의 유치원 교사에 대한 이미지 변화. **교원교육**, 26(1), 1-19.
- 이혜경(2010). 유아교사의 전문성에 대한 경력교사들의 인식. **유아교육학논집**, 14(5), 287-314.
- 임유순(2008). 영유아 보육시설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부모관련 변인 연구. 전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장영애 · 이영자(2008). 아버지의 양육행동, 양육참여도가 유아의 자아개념과 친사회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관계학회지**, 13(1), 187-206.
- 전운숙(2010). 유치원 원장이 인식하는 원장의 이미지를 통한 리더십 유형 분석. **미래유아교육학회지**, 17(1), 329-351.
- 정옥분 · 정순화 · 김경은 · 박연정(2007). 가족가치관과 부모역할인식에 관한 연구 -세대간 차이를 중심으로-. **한국가족관계학회지**, 12(2), 215-249.
- 정은경(2008). 파랑새 어린이집 원장의 삶과 일에서 나타난 원장의 리더십에 관한 생애사적 연구. **유아교육연구**, 28(3), 173-193.
- 정정옥 · 김승경(2010). 보육시설장의 직무스트레스와 소진에 관한 연구 -충청남도 보육시설장을 중심으로-. **한국영유아보육학**, 64, 285-306.
- 조형숙 · 이경민(2004). 유아교육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영유아교사 양성체제 확립방안. **유아 교육학논집**, 8(4), 219-237.
- 최경순 · 정현희(1995). 아버지의 양육참여와 아동의 성역할, 정서반응, 친사회적 행동과의 관계. **아동학회지**, 16(1), 33-47.
- 최현미(2008). 유아 교사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요구 분석. **아동교육**, 17(3), 257-265.
- 한미경 · 엄지숙(2009). 어린이집 원장의 교직경험 이야기. **열린교육연구**, 17(3), 169-191.
- 황보영란(2003). 유아교사의 전문성 신장 기회와 관련된 사회 조직적 변인 연구. **유아교육연구**, 22(1), 153-168.
- 황순영 · 정영숙 · 우수경(2005).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아버지의 양육참여도와 역할만족도 및 유아의 사회적 능력. **한국생활과학회지**, 14(4), 521-529.
- 황향숙(1990). 유치원 부모면담에 대한 실태조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황현주(2003). 유치원 개인면담의 현황 및 교사와 부모요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Bloom, P. J. (2000). *Images from the field : How directors view their organizations, their roles, and their jobs*. In M. L. Culkin (Ed.), *Managing quality in young children's programs : The leader's role* (pp. 59-77). New York : Teachers College Press.
- Bronfenbrenner, U. (1993). *The ecology of cognitive development research models and fugitive findings*. In R. H. Wozniak & K. W. Fischer (Eds.), *Development in context* (pp. 3-44). Hillsdale, NJ : Erlbaum.
- Feeney, S., Moravcik, E., Nolte, S., & Christensen, D. (2010). *Who am I in the lives of children : an introduction to early childhood education (8th ed.)*. Pearson Education, Inc.
- Gibbs, N. (2005). Parents behaving badly : Inside the new classroom power struggle : What teachers say about pushy moms and dads who driven them crazy. *Time*, 40-48.
- Gordon, A. M., & Browne, K. W. (2004). *Beginnings & Beyond : Foundations in Early Childhood Education (6th ed.)*. NY : Delmar, Thomson learning.
- Katz, L. (1987). *The Experience of Personal Change*.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Graduate College, The Union Institute, Cincinnati, OH.
- Kozulin, a., Gindis, B., Ageyev, V. S., & Miller, S. M. (2007). *Vygotsky's Educational Theory In Cultural Context*. NY : Cambridge University Press.
- Lakoff, G., & Johnson, M. (1980). *Metaphors We Live*

- By. Chicago :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Lamb, M. E. (1997). *The Role of the Father in child Development* (3rd edition). New York : Wiley.
- Lerner, R. (1991). Changing organism-context relations as the base process of development : A developmental contextual perspective. *Developmental Psychology*, 13, 585-590.
- Patton, M. Q. (2002). *Qualitative research and evaluation methods* (3rd ed.). Sage Publications, Inc.
- Plutchik, R. (2006). **정서심리학**(박권생 역). 서울: 학지사(원전 2003년 출판).
- Sciarra, D. J., & Dorsey, A. G. (2003). *Developing and Administering a Child Care Center* (5th ed.). NY : Delmar Learning, Thomson.
- Ramsey, P. G. (2004). *Teaching and learning in a diverse world* Foreword by Sonia Nieto- (3rd ed.). NY : Teachers College Press.
- Rumelhart, D. E. (1975). *Notes on schema for stories*, (In D. Bobrow and A. Collins Eds.), *Representations and understanding : Studies in cognitive*. New York : Academic Press.
- Vygotsky, L. (1978). *Mind in society : The development of higher psychological processes*. Cambridge, MA : Harvard University Press.
- Yero, J. L. (2002). *Teaching in mind : how teacher thinking shapes education*. MT : MindFlight Publishing.

2011년 2월 28일 투고, 2011년 5월 12일 수정
2011년 5월 24일 채택